



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통합·일원화 추진

단독주택 +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, 대상지역·범위 확대로
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

추진부서 | 경기도 도시재생과 ☎ 031-8008-5565

개선배경



-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도의회 및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요구가 있었음
- 舊 「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」에는 단독주거지역, 단독주택으로만 집수리 지원 대상이 국한되어 있어,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·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왔음
- 이에, 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거지역을 제외하여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하였고, 단독주택을 소규모 노후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
 ※ 「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」(개정) + 「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(폐지)
 ⇒ 「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」 통합(개정 '24.05.16./시행 '25.01.01.)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- (대상지역) 쇠퇴지역,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구 또는 지역
- (지원대상) 단독주택



개선 후

- (대상지역) 도내 전 지역
- (지원대상) 단독주택 + 소규모 공동주택 (30세대 미만 건축허가)

추진과정



- ('23.08.02.) 단독주택 집수리 개정 정담회(김근용 도의원)
 - (현행)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중
 - (개선) 30세대 미만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(연립주택, 다세대 등) 전유부까지 지원
- ('23.08.21.~08.23.) 노후주택 관리지원사업 개선방안 보고(유영일 · 김근용 도의원)
 - 조례 전부개정 : 단독주택 집수리 → 소규모 노후주택(단독주택+공동주택) 집수리
- ('24.03.07.) 조례 개정 입법예고(이선구 도의원 대표발의)
- ('24.04.29.) 언론홍보 추진
- ('24.05.16.) 조례 공포(시행 '25.01.01.)
- ('24.08.02.)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
 - (현행) 단독주택(도시재생과), 소규모 공동주택(공동주택과) → (변경) 도시재생과 통합
 - (현행) 단독주택(기금사업), 소규모 공동주택(일반회계) → (변경) 기금사업 일원화

개선효과



-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대상지역 확대 및 지원대상에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(30세대 미만 아파트 · 다세대 · 연립주택)을 포함하여 노후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기대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도 불구하고, 협약체결 시점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권 보장 강화

단독주택 집수리 지원(前)



단독주택 집수리 지원(後)

